

TTC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하토리 미쯔토시 TTC 이사장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는 2005년 10월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년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11월 1일,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한국 TTA의 김홍구 사무총장과 중국 CCSA의 Baoxin Zhou 사무총장께서 참석하시어 「표준화 활동의 전략」에 대하여 강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100여 년에 걸친 통신사업의 독점상태에 중지부를 찍고, 자유 경쟁 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여, 1985년 4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TTC의 발족으로 이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신규 통신사업자(New Common Carrier)가 등장하고, 그들 각자가 독자적인 기술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통신의 본질인 상호 호환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에 의한 기술표준 작성에 의지하고 있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훼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기술표준(강제 표준 또는 공적 표준)은 네트워크의 손상 방지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그 외는 민간의 손에 맡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되어 TTC가 설립되었습니다.

TTC는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표준화 활동, 즉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입회금과 연회비를 지불하면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비정부 조직의 표준화 기관(SDO)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리라고 예상하신 분은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0년 동안에 있었던 획기적인 일을 들자면 많이 있겠지만, 역시 최근의 휴대전화사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가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를 넘어선 것, 인터넷 보급에 의해 전화(64Kbit)의 세계에서 수10Mbit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광대역의 세계가 된 것, 네트워크의 IP화가 진행되어 Guarantee형보다 Best Effort형 통신이 우세하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수입 면에서 볼 때) 고정망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업계의 맹주이며 창시자였던 AT&T가 매수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생활 양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TC도 창립 이래,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등의 상호 호환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표준의 제정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크게 변화하여 네트워크의 All IP화가 진전되고, 오퍼레이터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구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것에 맞추어 TTC의 활동 내용도 NGN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앞서

말씀 드린 TTC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장래의 TTC 표준화 활동의 방향성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NGN의 표준화에 목표를 맞추고, 최초로 국내외 주요 오퍼레이터의 NGN 구상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차세대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에 대한 강연, 이어서 한국 및 중국 표준화 기관으로부터 각국 표준화 상황 소개,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TTC의 표준화 진행방식에 대하여 좌담식 공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참가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관계자의 NGN 표준화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 자신은 NGN의 구축에 있어 SIP와 FMC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찬성하는 SIP 및 FMC를 표준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NGN의 표준화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시아의 CJK 3국이 일치 협력하여 NGN를 구축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표준화의 프로세스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시간을 들여 세계 각국의 의견 일치를 얻은 방식이 아닌, 포럼에 의한 스피드를 중시한 De facto Standard적인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큰 역할을 이루어 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표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다음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표준화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경쟁과 협조의 정신 재확인
2. 국내 표준의 작성에 가세하여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업스트림 활동의 중시
3. 표준화 활동에 공헌한 일(사람)에 대한 사내, 사외에서의 적절한 평가
4. 국내외 표준화의 프로를 육성하는 조직 만들기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적인 제휴와 협력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3국의 표준화 기관에 의한 CJK 협력 관계입니다.ダイナミック하고 스피디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큰 성장력을 가지고, 세계가 관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이 표준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JK의 기술자는 FGNGN, ITU-T SG13 회의시에는 서로 기고서를 추렴하여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한 설득에도 제휴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TTA는 그 활동의 주축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들었습니다. NGN에 관한 TTA의 지금까지의 공헌에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JK의 표준화 활동도 상호 협력과 이해라고 하는 단계에서, CJK에 의한 공동 기고서 작성 등, 보다 심화된 긴밀화를 도모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JK의 골조를 보다 견고히 하여 세계의 표준화 활동에 있어 앞으로도 지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TTA 사무총장께서도 참석해 주신 심포지엄의 친목회에서, 「세 개의 화살의 가르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전해지는 고사로서, 어느 유명한 전국시대 장군이 그 세 명의 아들에게, 한 개의 화살은 쉽게 꺾여 버리지만 세 개라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하며, 서로의 결속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TTA, CCSA, TTC는 확실히 세 개의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NGN를 비롯한 표준화에 함께 임하여, 정보통신의 발전과 사회경제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TT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TTA**